

III. 합심기도

- ① 회개: 모세가 백성들의 죄악을 품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과 나라의 죄악을 품고 회개 기도합니다.
- ②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표어처럼, 성전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 ③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번 위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 ④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방역당국, 의료진,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있는 힘을 더해주시고, 워드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한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 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가 무너지게 하시고, 거짓 복음에 매여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

IV.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암송보다는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눅 24:5b-6]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모임 순서

- 마음열기 : 지난주를 돌아보며 나누기
- 찬 양 : 찬송 171장
- 성경읽기 : 눅 24:1-12 (신약 139면)
- 말씀나눔 :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 삶에적용 : 그러면 나는?
- 기 도 : 합심기도
- 주기도문

I. 말씀 나눔

1. 여인들이 부활의 최초 목격자요, 증인들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1절)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 대한 식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기적은 거저 체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특별한 직분을 가졌다고?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기적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 8:17]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께서서는 만나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나아가지만 때로 신앙생활에 근심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

오늘 본문의 여인들 역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부활의 기적을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은 사랑만으로,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정적인 한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3.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5-6절)

5절에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엉뚱한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1)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다는 것은 여인들이 지금 사흘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 된 그때 그 ‘과거의 기억’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 과거의 예수님에 대한 기억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라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거에 매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6b절,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미래에 대한 말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만 기억했다면, 여인들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부활의 놀라운 새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II. 삶에 적용

1.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은 무엇이며, 왜 그렇습니까?

2. 오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내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해봅시다.